



## 세상사는 칼럼

### “어디까지가 이웃일까?”

5.18의 참상을 고발한 장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를 썼던 김준태 시인은 철없고 아름답던 유년시절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야만 했던 젊은 날의 아픔을 그린 후에, 그저 그렇게 속물처럼 사는 자신을 한탄하며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고민하다, 천재시인 천상병 시인이 감탄했다는 ‘감꽃’을 쓴 바 있습니다.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섰지*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  
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엔 무엇을 셀  
까 몰라*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지 몇 해가 되지 않아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을 겪고, 세계최빈국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던 나라. 감꽃을 세던 감수성 깊은 젊은이를 목숨을 담보로 달려벌이를 위해 해외로 파병해야 했고, 돈독 오르기까지 ‘경제, 경제’를 외치게 해야 했던 시절이 있던 나라. 그 시절이 하수상하

여 먼 훗날엔 과연 무엇을 셀 것인지 한탄하고 자괴감에 빠지며 이웃을 돌아볼 여유라곤 찾아볼 수 없던 나라, 대한민국.

먹고 사는 문제가 지상과제였던 시절엔 ‘재건’이라는 이름 하에 ‘사람이 우선이 아닌, 경제가 우선인 나라’라는 명제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했던 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각국의 원조를 필요로 했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보다 잘살던 많은 나라들이 독재와 부패로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뒷걸음칠 때도 대한민국은 높은 교육열과 근면으로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해 냈습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기적을 이룬 나라’로 바뀌었으며, K-팝과 드라마, 영화 등은 전 세계를 열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규모가 세계 몇 위이고, GDP가 얼마이고,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1톤급 이상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한 우주 강국이 되었다는 자긍심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로 살갑게 웃으며 사람 사는 맛을 느끼게 해 주던 이웃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무엇보다 초고령화와 세계 최저출산율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불러왔으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과 높은 청년 실업률의 책임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일부 정치인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쌀 한 톨이 귀하던 시절에도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고 까치에게마저 마지막 먹을 것을 양보할 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웃은 어디까지일까요?

글로벌 시대,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노동환경 속에서 저임금에도 희망을 품고 국경을 넘어 온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도 무릎에 누이고 싶은 사랑하는 연인이 있고, 재물을 보며 행복해지고 싶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에게 따뜻한 눈길로 손을 내밀며 다가가는 일은 이제 우리 몫이어야 합니다.

## 상담이야기

### 쉼터 평판을 알게 해 준 상담 사례

전 세계 모터 사이클 헬멧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평창 동계올림픽 스킨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후원업체. 이름만 대면 헬멧에 관심 없는 사람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유명 중견업체.

위 업체에 부품납품을 한다는 회사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인 W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을 일했지만 사측은 퇴직금 급여를 거절했다. W는 결혼 일자를 잡고, 귀국 항공편 티켓을 구매한 상태에서 쉼터를 찾아왔다. 이에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경우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말하고 귀국 일정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히고 상담을 진행했다. 사측과 대화를 먼저 시도했다.

회사 대표는 Y가 미등록자라 급여에 퇴직금을 미리 챙겨서 지불했기 때문에 줄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측도 W가 출국 일자가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회사 대표는 국

내 인건비가 너무 올라 원청과 함께 베트남 이전을 준비 중이라 바쁘다며 대화를 회피했다. 회사 대표는 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회사 대표와 통화 이후 사측 노무 담당으로부터 3백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사측은 퇴직금 감액 이유를 W가 그동안 사용했던 기숙사 비용 등을 공제했기 때문이라고 우겼다. 이어서 사측은 출국 일정이 빠듯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W에게 직접 연락하여 협상을 시도했다.

하지만 근무 기간 대비 지급하겠다는 액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쉼터에서는 W에게 출국 일정을 연기할 것을 권하고, (W는 출국 일정을 미루지 않았다. 300만원이라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퇴직금 외에 연차수당까지 못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쉼터에서는 진정 이후 고용노동부 출석일자가 잡혔을

때 사측 대표에게 다시 연락했다. 출석 통보를 받은 사측 대표는 노무사를 통해 사측 미지급금이 1,737만 원 상당임을 파악하고 있었다. 사측 대표는 1,600만원에 고용노동부 출석 없이 진정 취하를 요청했다. 이에 W가 동의했고, 사측이 1,600만원 입금하자마자 진정 취하해서 발송하여 상담을 종결했다.

이 상담의 특이점은 출국 준비에 바빴던 W는 상담 첫날만 쉼터를 방문했는데, 사건이 해결됐다는 점이다. 그럴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사측 대표가 쉼터가 평소 용인에서 하는 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측 대표는 원청이 노동조합과 오랫동안 갈등(사측의 노조활동 방해 등..)을 겪기 전부터 노조 관계자들과 쉼터 대표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을 정도였다.

뜻하지 않게 목돈을 쥐게 된 W는 원래 예정대로 출국했다.

# 쉼터소식

☐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했던 무료진료를 5월 셋째주부터 격월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한방치료에 이주민들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 실직과 출국 준비로 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쉼터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 7월 6일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에서 지원받은 삼계탕을 쉼터 식구들과 맛있게 먹었습니다.

☐ 7월 31일 필리핀 공동체에서 6개팀이 처인성 어울림센터에서 농구대회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방역물품 전달과 생활 지원 등이주민들을 도와준 것에 대해 필리핀 공동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 필리핀 이주노동자 라밀이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 합법화 정책에 따라 체류 자격을 얻고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도 받아 10년 만에 고향 방문을 합니다. 작년에도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 체류 자격 지원을 받은 키아누가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학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표님이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기적인 국제이주 협약 이행 평가를 위해 국제이주검토회의(IMRF)에서 '외국인보호소에 관한 아시아적 관점' 논의에 발표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지난 4월 20-21일 이들 동안에는 네팔에서 진행된 국제이주 관련 지역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 한국어 교육 2학기는 8월 14일부터 시작해서 16주 동안 진행됩니다. 매주 일요일 6개반이 2시간씩 수업합니다.

## 프로그램

### ◆ 한국어 교실

#### ■ 매주 일요일

10:00~12:00 중급2

12:00~14:00 초급1, 토픽

14:00~16:00 초급1, 중급1

16:00~18:00 초급2

■ 장소: 쉼터 교육실 1,2

■ 한국어 교사 :

서명분, 이지현, 박경숙

### ◆ 무료진료

■ 격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2:30~4:30

■ 진료과목:

내과, 한방

■ 이미지용

■ 발마사지

■ 장소: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 명선교회 의료선교팀



농구대회 후 필리핀 공동체 임원진과 함께



한방진료

## เทศาพญา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레 24:22)

대한예수교  
침로회 다문화교회

## 후원 안내와 도움 주신 분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 1. CMS 후원하기

- CMS 후원 신청을 할 때 아래 링크와 QR 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c11.kr/11wgb>

QR코드



### 2. 계좌이체 후원하기

- 국민은행 : 218101-04-095567  
(예금주 : 용인이주노동자쉼터)
- 국민은행 : 218137-04-010844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3. 한국어교실 한국어교사, 쉼터 행사 지원, 통/번역, 청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원 활동할 수 있습니다.

### ☐ 개인 후원

서계현, 이병훈, 신재현, 조현구, 한정승, 김남철, 이동선, 손희숙, 고경옥, 안옥희, 조성배, 김화섭, 휘태커, Jauvier camposano, 장태욱, 안영미

### ☐ CMS 후원

임창현, 문영일, 하윤기, 채종락, 조현진, 김찬주, 부두정, 차미경, 손정위, 강현길, 유영호, 고영우, 권성희, 이현주, 박정하, 홍자임, 한미영, 이희경, 정성미, 송영신, 오소현, 임현숙, 이지현, 고검지

### ☐ 단체 후원

고기교회, 동남교회, 순복음 성광교회, 향상교회, 기)강릉소망교회, 목포주안교회

### ☐ 물품 후원

- ◆ 문택네트워크 : 생필품과 떡국 재료
- ◆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 : 삼계탕 꾸러미 20개

## 찾아 오시는 길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Tel 031)333-6644  
Fax 0505)334-6644  
www.1218forall.com